

초등학교 학생의 비만도에 따른 치아우식증

문정순, 송병선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매산초등학교

초등학교 학생의 비만도에 따른 치아우식증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구강건강 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 1개 초등학교 학생 668명의 1998년도 건강기록부 자료를 사용하여, 비만도는 Roher지수에 의거 산출하였고, 치아 우식증은 미처치우식치아, 상실치아, 우식경험처치치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학생의 치아우식증의 유병율은 79.6%였고, 평균 우식치아수는 2.95개였으며, 이중 미처치 치아가 1.12개였고, 처치 치아가 1.83개였다. 치아 우식증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이 많을 수록 낮아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만도에 따른 치아 우식증 유병율은 과체중 군이 68.8%, 정상 군이 82.6%, 저체중 군이 77.3%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 우식치아수는 세군이 각각 2.38개, 3.19개, 2.73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전체 학생의 상실 치아를 포함한 치아우식증의 유병율은 74.0%였고, 평균 우식 및 상실치아수는 3.64개였다.